

III. 北韓 診斷

1. 對北 農業 支援

- (지원 배경) 개혁에 소극적인 북한 입장으로서 농업 부진을 내부적으로 해결하기 힘든 상황에 있음
- (내용)
 - 북한은 국제적 영농 지원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, 최근 국제기구는 식량 뿐 아니라 각종 영농 지원 등 지원 폭을 넓히고 있음
 - 북한은 남한에 대해서도 남포시 농업 공동 개발 등 농업 투자 유치를 추진하고 있음
 - 남한은 최근 대북 농업 지원에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, 정부 차원의 영농 지원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임
- (평가 및 과제) 국제기구의 대북 지원 확대와 관련하여 남한의 참여를 고려할 수 있으며, 민간차원의 농업 지원 및 생산력 발전을 위한 종자, 비료, 농기계 등의 지원이 가능할 것임

북한의 농업 부진은 내부적 해결을 기대하기 힘들

- (배경) 북한의 최근 수재 및 주체 농법의 실패, 근로의욕의 감퇴는 북한 농업의 기초를 파괴하였음
 - 이러한 사정이 북한의 정치경제적 위기와 맞물려 자율적인 농업 발전은 기대하기 힘들
 - 북한의 급변 상황 저지 및 장기적인 통합의 관점에서 식량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농 지원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음

북한은 국제적 영농 지원에 관심을 높이고 있으며, 국제기구의 참여도 확대됨

- (국제적 농업 지원) 북한은 식량 지원 뿐만 아니라 국제적 농업 지원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으며 최근 국제 기구도 이런 방향으로 지원을 확대하고 있음
 - 미국의 카터 센터는 1993년 에티오피아에 전파해 성공한 바 있는 영농법을 북한에 전수하기 위해 북한 당국과 협의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음
 - 스위스 대학생선교회(CCC)가 작년 11월부터 함경남도 신흥과 병풍 등지에서 농장 개발 협력 사업

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짐

- 유엔개발계획(UNDP)은 지난 3월 325만 달러 상당의 보리종자 6,500 여톤과 비료 1,900 여톤을 북한 측에 전달함
- 이 지원은 북한정부와 UNDP가 합작으로 추진중인 농업지원 및 피해복구 프로그램의 일환임

북한은 남한에 대해서도 농업 투자 유치를 추진함

○ (북한의 대남 움직임) 북한은 남한에 대해서도 농업 투자 유치를 추진함

- 지난 3월말 북한은 흑룡강 민족개발총공사를 통해 남포시의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생산 자재 및 기술 제공을 남한 정부 및 기업에 요청하였음
- 이 요청에 따르면 남한과 중국은 비료·농약 등 생산 자재와 기술을 제공하고, 북한은 개, 콩, 한약재 및 광산물로 이를 상환한다는 것임
- 정무원 농업위원회는 5월 26일 재미교포 김양일 동일그룹 회장에게 외국과 북한의 농산물 계약 재배 및 수출입에 관한 권한 등을 위임하였음

최근 남한은 대북 영농 지원에 대해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, 정부 차원의 지원은 당분간 어려울 것임

○ (남한의 대북 움직임) 남한은 최근 대북 농업 지원에 대해 자세 변화를 보이고 있음

- 대북 민간 지원을 허용한 후 남북 적십자회담을 통해 지원 협상이 극적으로 합의됨
- 지난 4월 30일 농촌경제연구원에서 「북한농업재건을 위한 장단기계획」을 청와대에 보고하여 북농업 지원을 위한 국제컨소시엄 추진을 제시함
- 재원조달 및 북한 사정 고려 등으로 인해 국제컨소시엄을 형성하는 것으로 함
- 컨소시엄은 KEDO와 유사하게 한미일중 4개국을 중심으로 「한반도 농업개발기구(KADO)」를 구성하는 방안을 채택함
- 그러나 이 계획은 몇가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음
- 소요비용이 크기 때문에 미일중의 미온적 태도가

예상되며, 컨소시엄이 결성되더라도 한국이 거의 대부분의 재원을 조달해야 할 것으로 보임

< 북한 농업 재건을 위한 장단기 계획의 주요 내용 >

	주요 내용	소요 비용
1단계 (최초 1-2년)	- 식량과 농자재, 현물지원 - 농지기반시설과 산림황폐지역 복구 - 농산물 가공 및 저장시설 지원 - 계약재배 및 시범농장 건설시 농자재 지원	8조 771억 원
2단계 (3-5년)	- 생산기반시설의 재정비, - 농업생산기술 지원 - 농자재 사업의 시설 현대화 - 북한 5대강 유역 종합개발	16조 6124억 원

자료: 한국농촌경제연구원

국제기구의 지원 확대와 더불어 남한의 참여가 바람직함

- (평가 및 과제) 농업 지원 및 북한 농업 생산력 발전을 위해 정부 협의하 민간 차원의 점진적인 추진을 적극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함
 - 정부 차원의 투자 및 다국간 컨소시엄 형태는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므로 실제 실행에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됨
 - 따라서 이 기간동안 민간 차원의 농업 협력 활성화 추진 및 이를 위한 정책 수단의 활용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임
 - 농업 지원과 관련하여, 남한 정부의 간접 개입 속에 기업의 대북 지원을 남북 경험과 연계하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음
 - 예를 들어 지원의 대가로 기타 대북 교역이나 투자를 연계시키는 것임
 - 동시에 남한 정부는 대북 영농 지원에 있어 국제기구와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음 (황 동 언)